

연중 제3주일

기도서 335면(다해)
제1독서: 느 헤 8,2-4a 5-6.
8-10
제2독서: I 고린 12,12-30
복 음: 루 가 1,1-4; 4,14-21

숨 정 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루가 4,18).

강 련

소 리

“다시 부르는 노래”

김 진룡신부/중앙성당 보좌

노래라는 것은 참으로 매력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라는 것을 고고한 클래식이나 실내악 등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어쨌든 음정과 가락에 노래말을 넣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야말로 무식한 말로 규정짓는다면 노래라는 것이 성큼 우리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누구든지 노래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한다면 머뭇거리다가도 ‘돌아가는 삼각지’ 하며 ‘두만강 푸른물에’를 필두로 쏟아지듯이 한 두 마디의 노래는 대부분 뽑아낼 줄 압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걸리 한 사발에 ‘한 많은 이 세상’을 토해내던 선조들의 가슴속의 전수라는 점을 볼 때 노래는 요즈음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래는 떨 수 없는 생활의 한 형태였습니다. “성서와 찬송가”로 교회의 새벽을 두드려왔고, 모든 전례와 모임의 장소에서 노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노래는 음물에 메시지를 함께 담아 메시지 자체나 음률 자체가 서로의 힘을 보태주고 힘을 주어 노래라는 하나의 형태를 노래이상의 효과에로 끌어 올려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노래 부르는 대중가수는 그 위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어느새 딱 하나 ‘별’의 위치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지나는 곳곳마다 극성스러운 팬들의 환호성이 그 별의 가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팬들은 미치도록 좋아하다 못해 그 별을 총으로 쏘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노래에 대한 애착도 깊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래들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노래의 숫자를 헤아리는 데 손가락이 사용된다면 일평생을 세고도 모자라서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불리는 노래는 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자연스레 손가락을 굽힐 수 있습니다. 노래는 많아도 다시 불리는 노래가 적다는 의구심은 노래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의 만족할 만한 만남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 노래는 나의 노래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노래, 그것은 다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다시 부르지 않으면 앓될 삶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2천년의 교회가 불러온 삶의 노래, 그것은 구원과 해방의 노래입니다. “무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 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루가 4,18-19)”를 선포할 노래입니다. 진정 이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루가4,21) 노래입니다.

“쉴새 증언대에 서라”

“음막집에서 살았고 제동생이 약 한번 못써보고 제 품에서 죽었다고? 그랬으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뭐야? 재벌들 돈 뜯어다 아방궁같은 집이나 지었던 작자가 다급한게 죽은 동생까지 팔아먹어? 8·15나 6·25 뒤 그런꼴 안당하고 살았던 놈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냐 돼?” 진한 욕설과 함께 내뿜는 술집에서의 목소리다.

“내가 입만 벌리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식의 험박조 발언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12·12 쿠데타나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당시 정치군인들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는 데에만 급급했던 민정당원들의 태도는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연히 단행해야 했던 민주화 조치들을 마치 선심쓰듯 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과거의 잘못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정부의 5공비리 문제처리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방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공화당 시절엔 공화당의장으로 민정당 시절엔 민정당 대표로 전천후 해바라기성 정치인이 지난번 송년 인터뷰에서 광주항쟁 치유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얘기했다. 광주학살의 책임자도 가리지 않은 채 보상이라는 달콤한 꾀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광주항쟁의 그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왜 찢렸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실고 어딜갔지? 그 트럭에 실고 어딜 갔는지는 그 찢르고 쏜자들만이 알고 있다. 최근 광주시 지원동 주남 마을에서 계엄군이 학살한 양민의 암매장 사체가 발굴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날의 쓰라린 악몽을 언제까지 되씹어야 하나. 백담사에서 침적하고 있는 광주 학살 발포명령자 쉴새는 증언대에 서야 한다.

숨 정 이 산책



교회. 그 주인은 누구인가?

한 본당의 정책이나 전통이 본당 사제의 이동으로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공의회가 “주교, 본당 신부, 세속사제, 수도사제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이라는 것과, 교회 건설에 있어서 평신도들도 고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목자(司牧者)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과 형제처럼 협력하며, 사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5)라고 가르치고 있듯이 한 본당의 사목 방향과 정책은 평신도에 의해서만도 사제에 의해서만도 아닌 서로의 협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위한 교회의 정책이 단지 주임 사제의 이동만으로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사제의 독선이나 평신도의 책임 회피의 결과일 것이다.

불과 3~4년만에 뒤 바뀌는 정책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진정 그것이 하느님의 사업에 꼭 필요하여 시행해온 것들이라면 해가 갈 수록 더욱 발전, 성장시켜야 한다.

전임 사제와 교우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제의 이동과 함께 와해되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신임 사제의 사심없는 개혁을 감정적으로 또 어떤 세속적인 이유로 극구 반대하며 불평하는 모습도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무쪼록 떠나시는 신부님들과의 인간적인 감정은 하루 빨리 정리하고 새로 부임하시는 신부님과 하루 빨리 친숙해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사제 인사 이동 제도가 오히려 교회의 본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제의 이동이 한 교회를 뿌리없는 교회, 항상 새로 시작되지만 하는 전통없는 교회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본당 신부가 누구인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지역을 일관성있게 복음화 해 나가는 그런 본당의 모습이 아쉽다. 이는 평신도들의 주인의식, 즉 자기 본당의 주인은 3~4년 마다 떠나야 하는 사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곳에 살아야 하는 평신도, 자신들이라는 명확한 자기의식에서 가능해 진다.



성서와 함께

34. 헤로데 가문과 팔레스티나의 통치(C) : 아르켈라오

아르켈라오는 헤로데 대왕의 장남으로서 가장 넓은 땅을 상속받았다. 그의 영역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두메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세 민족은 서로 화합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귀양에서 돌아와 사마리아인들과의 협력과 교제를 일체 거부한 이래 서로 원수기간이 되어 왔다.

이두메아는 에돔의 로마식 이름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대인들과 오래전부터 적대관계를 맺어왔는데 특히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유대인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끊임없이 북진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한때 하스모네아 가문의 왕 요한 허르카누스가 이두메아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켜 유대인들에게 귀속시키려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책은 오히려 이두메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더욱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은 이두메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개종자로 행세했기 때문이다.

아르켈라오는 헤로데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통치자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에집트 피난살이를 끝내고 팔레스티나에 돌아왔을 때 아르켈라오의 영역인 유대아를 피하여 갈릴래아의 나자렛에 정착하려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는다(마태 2, 22). 아르켈라오는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대사제 들을 연이어 파면시켰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양편에서 각각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밀사들을 보내어 그를 왕좌에서 축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르켈라오는 기원 후 6년 폐위되고 로마의 총독 코포니우스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의 공생황 중에 무슨 이유로 갈릴래아와 예루살렘이 서로 다른 통치자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즉 갈릴래아는 여전히 변절자이긴 하지만 본방인 출신의 안티파스에 의해 통치되었고 유대아는 이방인 출신의 로마 총독들이 다스렸다.

총독들은 폭동의 가능성이 높았던 해방절을 제외하곤 가이사리아에 살았다. 그 도시는 지리적으로 유대아의 북서쪽 끝에 위치해 있었지만 온갖 사실이 갈 갖추어진 새 도시였고 로마 사절이 직접 통치했던 시리아의 수도 안티옥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총독부가 들어섰다. 총독들은 이 도시에서 유대아 전체의 안전과 군사업무를 관장하였다. 세금징수와 재판업무를 그들의 책임하에 이루었다. 그들은 몇가지 시민적 공권력을 유대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에 양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양도하였다. 예수는 산헤드린의 권위에 의해 체포되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AD 26-36)에게 사형언도를 받았다(마르 14-15장).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윤경 (유리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미주건강식품
인삼·꿀·홍삼제품·설록차
코산차·건강선물셋트·영지
이정숙 (말다)
코아백화점 지하 다방 앞
☎ 85-0551 (교) 19

한국Honey Moon관광
신혼여행·효도·부부기념·골프여행전문
제주도·설악산·부곡·경주·백암연못
※ 항공권·기차표·고속버스표·카레리호
송신권 예약 및 배달안내
알라딘해외여행카드발급 전주지사
전주코아백화점6층 데어사 송 빌리바
☎ (0652) 83-8232
FAX. (0652) 86-2546
C. R. T: rhdj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마리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잠 깬!

연속되는 성당화재! 대책을 세우자

작년 10월 10일 전동 성당의 화재에 이어 또다시 군산 오룡동 성당에 불길이 치솟았다(1월 5일 밤11시). 어떻게 지은 성당인데 아니 그곳이 어떤 곳인데 불을 지른단 말인가? 어이없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잊는다. 나쁜면 사람이 나쁜지 성당이 무슨 죄란 말인가? 너무나 양 성당 공회 교회 현실참여의 최선봉에 섰던 성당이었다는 점에서 그저 예사일로 보아넘길 화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 더욱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단순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이거나 실화에 의한 재앙이라면 잘못살아온 신앙생활의 보속으로 알고 힘을 합쳐 수리하면 그만이려만. 이땅에 빛을 밝힌 데 대한 어둠의 보복이라면 이 보복은 제3 제1의 불길을 암시할진데... 어찌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할 노릇이다. 또한 이런 불길한 예감을 확인이나 시켜주듯 미적거리리는 공권력의 태도는 무엇인가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한다.

이 어디 전동이나 오룡동 신자들만의 일인가! 주님의 성전에 불길이 솟고 제단과 제대에서 화마(火魔)가 춤추는데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 아픔을 나누고 중지(衆智)를 모아 대책을 강구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구민들의 간절한 기도이다. 우리모두 방화범을 찾아내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또 "주여! 우리의 죄가 비록 하늘까지 닿았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성전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자.

요십이 (807) 김병오



교 구 소 식

1. 본당 재정부장, 차장, 총무연수회 : 1월22일 오전9시30분 가톨릭 센터 참가비3,000원
2. 혼인강좌 : 1월29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수강료 : 5,000원
3. 「선택」 전주2차주말 : 1989. 1. 27(금)~29(일) 접수문의- 교육국(85-0041)
4. 재속삼회 총회및 피정 : 일시-89. 1. 28 9시- 오후4시까지 장소- 노송성당 참가비 1,000원 준비물- 도시락, 지침서, 성가집, 타고교상
5. 이루갈다 순교자미사 : 1월31일 오후3시 해성고 순교당

6. **복사단을 위한 하루 피정을 잘마쳤습니다.**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미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때에 전례에 봉사하는 복사단을 위한 하루 피정에 모두 즐거워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사단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초등부 복사단 피정 참가현황

중앙10명, 금암18명, 덕진13명, 서신동13명, 송천14명, 숲정이14명, 인후동11명, 노송동8명, 복자15명, 서학동11명, 평화동8명, 효자우전2명, 대야7명, 오룡동34명, 옥봉12명, 팔마15명, 영등동14명, 주현동11명, 창인동13명, 고창10명, 신태인8명, 임실2명, 요촌10명, 신평9명, 원평3명, 신암공소4명, 진안15명, 장수5명, 삼례11명, 고산5명, 여산6명, 금마9명, 익산공소6명, 함열12명, 황등5명, 용안13명 **총389명**

7. 방송안내 : MBC 라디오 매주 월요일 오전6 : 25 「아침을 달린다」
CBS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후2 : 50 「CBS에세이」
8. 전화번호변경 : 서학동 성당- 사무실(86-4929) 수녀원(84-2276)
송천동 성당- 사제관(74-8873) 사무실(74-1004) 수녀원(4-1142)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 (필배)
전주시 덕진동1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자연건강법강연

- 1월28일(토) 오후2시
- 장소 : 전동성당 강당
 - 강사 : 한국 자연 생체 생체식 연구회
- 회장 장 두 석 선생

정신과학세미나

주제 : 고도의 두뇌 및 정신력 활용법
효과 : 스트레스해소, 수면조절, 신앙심화, 기억력, 집중력, 정신력을 통한 질병조절, 상대설득법, 습관조절, 자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등.
일시 : 1월 26일(목), 1월 29일(일) 오후2시, 7시
장소 : 이리시 동원예식장(2층) 중앙동3가 국민은행 옆
연사 : 박 은 석 (요한) 원장 참가비 : 1,000원

"발표력을 기릅시다. 웅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 서중로터리)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진주역 앞) ☎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자쌍용APT 앞) ☎ 83-8331~2
원장 유 병철 (헤드로) · 원감 박 경애 (이질리)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감사합니다 : 그동안 분당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본당·보좌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송식-오늘 공식미사후(가시는 날 보좌-26일 오전 본당-27일 오전)

※ 환 영 : 황인규(마태오) 본당신부님, 최용준(안토니오) 보좌신부님 오시는날-27일(금) 환영식-다음주일 공식미사후

1. 재속형제회 피정 : 28일(토), 노송성당 오전9시
2. 모 임 : 성체회-27일(금) 어머니미사후 재속형제회-다음주일 오후2시
3. 공소미사 : 다음주일
4. 유아세례 : 2월 마지막(금)으로 연기합니다.
5. 초 축성 : 주의봉헌 축일(2월2일)-29일부터 초봉헌 받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71,190원 □ 교무금 : 396,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원영
수녀원 76-0961

※ 수고하셨습니다 : 오현택(가시미로)신부님, 송별미사-오늘미사

1. 금주는 애령주간 : 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 차주는 구라주일 : 특별헌금 있음
3. 금성회 : 차주 공식미사후
4. 금주전례 : 해설-나인구 봉헌-박영희부부
복사-박희정, 양정용 기도-47, 48, 49번
5. 차주전례 : 해설-박영근 봉헌-소환영부부
복사-장수택, 임병규 기도-50, 51, 52번

□ 지난주 봉헌금 : 새벽 140,960원(154명) 공식 418,860원(466명)
저녁 163,840원(211명) 합계 723,660원 □ 교무금 : 422,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철
수·유 72-2222

1. 애언자의 모후 꼬미씨음회의 : 오후2시 성당
2. 신축위원회 모임 : 저녁미사 후(2층 회의실)
3. 구역장·반장 모임 : 25일(수) 오후2시
4. 전례분과 모임 : 25일(수) 저녁7:30
5. 성지가기 회수합니다 : 2월5일까지 사무실에 내세요.
6. 젊은이들 만남의 날 : 27일(금) 저녁7시
7. 고백성사 : 28일(토) 특전미사후(손신신부님)
8. 중·고생 통계 등반 : 27일(금) 10시 미사후 성당집결 회비1,000원
9. 다음주일은 구라주일입니다 : 2차 헌금 있습니다.
10. 축하드립니다 : 박래세리아수녀님 영명축일-24일
11. 금주전례 :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사회복지분과
기도-덕진14반
차주전례 :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요셉회
기도-덕진16반

□ 지난주 봉헌금 : 969,520원 □ 교무금 : 583,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다음주일은 구라주일입니다. 나환자들을 위한 2차헌금 있음.
 2. 제대초 봉헌(주의 봉헌축일-2월2일 미사-오후7:30) : 사무실에 접수(1개당 1,000원)
 3. 모 임 : 오늘 공식미사후-애덕회, 차주공식미사후-애령회, 청년회
 4. 예비자 모집(8월 영세반) : 많은 인도 바람(일교식 2월16일)
 5. 혼인강좌 : 29일 오전9:30 센타(결혼을 앞둔 미혼 남·여 한달 전 사무실에 접수바람)
 6. 여성 27차 꾸르실료(23일부터) : 백순회(모니카) 많은 기도바랍니다.
 7. 구역미사(24일) : 동산4.8구역 B. 나눔잔치(25일) : 원반월
 8. 금주청소 : 평화의 모후Pr. 차주-죄인의 의탁Pr.
 9. 금주전례 : 해설-한기원 독서①임선홍 ②김순오
차주전례 : 해설-손백규 독서①류경주 ②최병유
- 지난주 봉헌금 : 306,850원 □ 교무금 : 289,000원
□ 수요헌금 : 19,740원

*서신동

사제관 71-8873 주임신부 박성필
사무실 71-1001 사목회장 박병열
수녀원 1-1112

※ 벽돌 헌금 함 :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상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예비자 모집 : 일일 일명씩 인도 합니다. 기간-1일부터 31일까지

※ 89년도 교무금과 성전 신축 봉헌금을 1월중에 신임 바랍니다.

※ 중·고등 학생 피정 : 28일 오전9시부터 20시까지 회비500원

※ 폐품수집 : 성모회에서 연중 폐품을 수집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모 임 : 방주회-29일 공식미사후 총회가 있습니다.
 2. 금주본당 청소 안내 : 평화의 모후 차주-매괴의 모후
 3. 금주미사 안내 : 매괴의 모후 차주-증기자의 모후
 4.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①김남근 ②이병희
 5.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①김영복 ②이환은
- 지난주 봉헌금 : 302,860원 □ 교무금 : 153,500원

*송천동

사제관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병을
수녀원 4-1142

1. 유아세례 : 28일 오후5시 대상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람
 2. 사목회분과 회의 : 24일-선교, 청소년분과 25일-구역, 여성분과
 3. 성지가기회수 : 지난해 성지가기 가져오세요.
 4. 초 축성(2월2일) 준비 : 제대용, 가정용 사무실 접수
 5. 본당 마무리 공사 : 신임총액8,282,000원 원병수10만, 유광수2만 감사합니다.
 6. 다음주는 구라주일 : 고통받고 소외된 형제를 위한 2차헌금
 7. 금주본당 청소 : 송천6,11구역 28일 오전11시
 8. 금주전례 : 해설-박세영 독서-주정규부부
기도-윤수하 이정숙 백용순 이주용
차주전례 : 해설-김혜숙 독서-오 영부부
기도-박병태 이인숙 신윤선
- 지난주 봉헌금 : 386,000원 □ 교무금 : 250,000원

*숲정리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공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1. 오늘 : 총무, 재정부상, 차장 연수(센타에서)
축! 혼배-막복자 여사 3남 차수옥(라우렌시오)군12시
[정대성 씨 2녀 정영미(라우렌시아)양]
 2. 초 축성(2월2일) 준비 : 봉헌용과 가정용 사무실에 접수(1개-1,200원)
 3. 꾸르실료 : 여성27차(23일~26일)-김숙현, 권정희, 오영자 남성 31차(26차~29일)-고영선
 4. 북전주지구 초등부 6학년 졸업피정 : 24~25일(부주하습원)
 5. 28일 : 제대회(오전10시) 유아세례 병차방문
 6. 다음주일 : 구라주일(2차헌금있음) 모임-요한회
혼배 [조용만씨 3남 조현우(안토니오)군]11시30분
[김용순여사 장녀 이정례양]
 7. 금주본당청소 : 화-바다의 별 토-셋빛의 모후 8. 금주전례 :
독서·기도-김경주 김숙현 봉헌·기도-김만수 한계자
차주전례 : 독서·기도-나병열 조현자 봉헌·기도-서창원 한정희
- 지난주 봉헌금 : 387,640원 □ 교무금 : 115,0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용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수일
사무실 86-5022

1. 꾸리아 윌레회의 : 22일(일) 오후2시(강당) 2. 본당승려 2주년 : 24일
3. 사목회 신·구 임원 모임 : 29(일) 12시 30분. 장소-백제로 회관(6지구 로타리) 4. 성가대 단합대회 : 27일 오전9시
5. 유아세례 29일 저녁 7시, 6시 30분까지 신청바람 ※ (주민등록번호 적여오세요)
6. 이스라엘 성지 순례 : 90년 1월중에
7. 성지 가지 회수 : 2월 5일까지 사무실에
8. 미사시간을 잘 지키세요. 일요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1시, 저녁 7시30분 월요일 오전6시 화요일 저녁7시30분, 수요일 저녁7시30분, 목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저녁7시30분, 토요일 저녁7시30분
9. 성전신축추진 위원은 성전 축성식까지 유입입니다.
10. 자모회 윌레회의 : 26일 어머니 미사후 많은 협조와 참여바랍니다.
11. 금주미사 안내 : (22) 구세주의 모친. 다음주 미사안내 : (29) 능하신 정녀

□ 지난주 봉헌금 : 756,980원
□ 성전 신축을 위한 2차헌금 : 370,370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